총선 입지자들 출판기념회 들여다 보니

얼굴알리고 조직다지고 자금모으고 2000명 이상 인파 몰려야 '흥행성공'

김재균의원 5천명 몰려 '기록'

책값 1만원→1만5천원대로↑

1000원 넣은 봉투도 수십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과 총선 입지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고 조직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다. 여기에 책 판매를 통한 짭짤한 부수입은 덤이다.

특히,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에는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이 적나라하게 투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 과시' 정치=최근 광주·전남지역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흥행을 둘러싸고 미묘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같이 절대적 대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 여론과 조직력이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적 '세'를 유권자에게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에 지지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고 당 지도부 인사, 광역단체장 등 '명망가 모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의 출판기념회는 2000명 이하가 참석하면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출판 기념회에 2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지난달 26일 전남대 강당에서 열린 김재균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는 참석 인원이 5000명을 넘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중몰이'를 통해 지지세를 과시했던 과거 80년대 선거 행태가 최근 출판기념회를 통해 '부활'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현실 반영=정치인들의 책 가격도 뛰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책 가격은 1만원 내외였다. 하지만 최근의 책 가격은 1만5000원대를 기록하며 절반 이상 급등했다. 조영택 의원의 책은 1만9000원에 판매됐다.

출판 비용, 장소 대여 등 출판기념회에 들어가는 부대 경비가 상승, 책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치인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입만 열면 '서민 경제'를 부르짖는 정치인들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궁색한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가격 대비, 책의 내용은 한 참 떨어진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봉투에 1000원을 넣고 책을 가져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광주 모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에서는 5000원 이하의 금액이 담긴 봉투가 무려 50개 이상 집계돼면서 쓴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이는 출판기념회에 동원이 이뤄졌다는 점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통과 참여'의 흐름=소통과 참여라는 사회적 흐름도 출판기념회에 반영되고 있다. 정치적 명망가들의 축사가 이어지는 단순한 구도에서 벗어나 지역구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장병완 의원(남구)은 이색적인 '북 토크' 형식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궁금한 점을 현장에서 답변하는가 하면 지역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이 담긴 '희망 종이비행기' 행사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 호평을 받았다.

또한, 김영진 의원(서 을)도 오는 6일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서 지역구민들과의 현장 대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는 등 출판기념회에서의 소통과 참여 기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일 광주시 동구 옛 도청앞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행복 온도탑' 제막식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최현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등과 어린이들이 풍선을 날리며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이웃에 사랑을… 온도탑 제막

광주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일 '나눔!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를 주제로 '사랑의 행복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62일간의 희망 2012 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구 도청 앞에서 사랑의 행복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 22억원 모금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이날 오전 목포시 옥암동 신도청 입구에서 희망 2012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모금액 58억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이날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 이웃사랑성금 5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 각 가정에 배포된 지로용지를 이용해 은행에 납부하거나 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결재로 가능하며 ARS 060-700-1212(1통화 2000원)로도 참여할 수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신문협회 회원사들도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을 실시합니다. 모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 **모금기간**: 2011년 12월 1일~2012년 1월 31일
- **모금계좌**: 광주=광주은행 013-107-373299
  예금주: 공동모금회 광주지회(문의 062-222-3566)
  전남=농협 617-01-162651
  예금주: 전라남도 공동모금회(문의 062-651-0222)
  * 홈페이지: www.chest. or.kr

"한미 FTA 불평등 사법부 나서야"

현직판사 재협상위한 TF구성 제안 공감 법관들 100명 넘어…청원 주목

현직 부장판사가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파장이 예상된다.

이 글은 법관들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FTA 비판글을 잇따라 올려 개인적 소신과 견해를 밝힌 것과 달리 협정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는 등 사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을 근거로 한미 FTA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3의 중재기관에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 내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TF의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바로잡아야 할지, ISD 조항은 타당한지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법원에서 TF를 구성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며 "나 역시 한 치의 이의도 없이 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들이 있다면 댓글을 기재해달라고 부탁하며 그 숫자가 100명을 넘어서면 TF 구성 청원문을 만들어 양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글이 올라온 이후 7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현재 의견에 동의하는 법관의 숫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돼 실제 청원문이 제출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재협상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해도 사법부가 재협상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청원서가 실제 들어오면 그 적절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볼만한 싸움이 되겠다

안철수 "제3당 창당·강남출마 생각없다"

"사회 공헌 롤 모델 만들것"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일 제3신당 창당설과 총선 강남 출마설 등 각종 추측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정치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 원장은 이날 경기도 판교 안철수연구소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당 창당이라든지, 강남 출마설 등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조금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교 일과 재단 설립 일만 해도 (많다). 다른 일에 한 눈 팔 수 없다"며 현 정치권과 분명히 거리를 뒀다.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안 원장이 신당 창당설과 강남출마설을 부인한 것이지, 정계 진출이나 대선 출마 자체를 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이날 창당설과 총선 출마설을 일축한 뒤, "정치관련 질문은 그 정도 답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 같다"며 발언을 자제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선 직행론'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안 원장이 여의도 정치에 발을 담그고 정치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대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치현장과 거리를 두는 '아웃복서' 행보를 총선 이후까지 계속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 원장이 굳이 총선 검증 과정에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며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후 정치지형에 따라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안철수연구소는 이날 '사회공헌팀'을 신설하고 이를 체계적·혁신적으로 발전시켜 한국 사회의 롤모델 기업을 만드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